

# 반도체지원법 등 미국發 훈풍에 반도체·에너지주 ‘방긋’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통과 예정  
삼성전자, 보조금·세제 혜택 기대  
태양광·풍력 관련주 연일 상승세



코스피가 전 거래일(2451.50)보다 7.45포인트(0.30%) 내린 2444.05에 개장한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미국발 호재로 반도체, 에너지 관련 주가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상하원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미국 상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패키지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의 반도체, 에너지 관련 업체들이 이 법안들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미국 반도체 지원법 통과… 반도체 관련주 중장기 수혜 기대

지난 28일 통과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2800억달러(약 364조원)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390억 달러의 자금 외에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용 공구 제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25%를 적용하고

연구 및 노동력 개발에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

이미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파운드리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고 인접한 테일러시에도 170억 달러(약 22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어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도 최근 미국에 반도체

연구·개발(R&D) 협력과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제조 시설 등에 대한 신규 투자계획을 밝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 인해 반도체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반도체 관련주의 반등 가능성을 점쳤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되면 삼성전자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의한 생산기지 현지

화로 고객기반 확대에 따른 중장기 수혜가 예상된다”며 “하반기에 분기 평균 10% 수준의 디램, 낸드 가격 하락 전망에 따른 실적둔화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연말로 갈수록 저점이 점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과 예상… 신재생에너지주 상승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르면 8월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3690억달러(약 480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같은 소식에 태양광, 풍력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어 1일에도 태양광·풍력 관련주는 상승세를 보였다. 신성이엔지는 전 거래일 대비 6.05% 오른 2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어 OCI는 0.82% 오른 12만3500원에 마감했으며 한화솔루션은 0.80% 오른 4만4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9일 23.77% 상승했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날 보합으로 마감했다.

풍력 관련주인 씨에스윈드는 전 거

래일 대비 3.78% 상승했다. 특히 태양광 및 풍력 기반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대명에너지는 지난 29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1일에도 3.14%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증권사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및 2차전지 관련 업체가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법안의 취지는 결국 태양광·배터리 등 재생에너지산업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우방국 중심으로 밸류체인을 구축해 최대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한다는 것”이라며 “최근의 글로벌 밸류체인상 국내 태양광 및 2차 전지 업체가 최대 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태양광 산업의 경우 중국이 전체 외형의 80~90%를 장악 중이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업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이며 2차전지 산업도 한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데 많은 한국 소재 업체들이 미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어 국내 태양광 및 2차전지 업체가 최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 지적이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자취 감춘 가상자산리포트… 증권가 발 빼기

루나·테라 폭락사태 이후 발행 줄어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엔 꾸준한 관심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 테라·루나 사태 등의 여파로 가상자산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업황 분석을 주도하던 국내 증권사들도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연초만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등을 편입하라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됐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잠잠해졌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루나·테라 사태 이후 5월 중순부터 가상자산 분석 리포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증권 한대훈 연구원이 꾸준히 ‘디지털 커런시 와치’ 등을 통해 꾸준히 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나머지 증권사에서는 모습을 감췄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SK증권을 비롯한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등에서 가상자산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올 초 ‘가상자산군 편입 및 운용 전략’을 통

해 자산배분 관점에서 소규모로 비중을 높을 경우 수익률 개선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한 하나증권에서도 월간 투자 전략을 담은 보고서에서 3가지 큰 주제에서 하나를 가상자산으로 할애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루나와 테라 시세 폭락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관련한 보고서 발행이 뜸해졌다. 당시 논란속에서도 일부 증권사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고서를 다루기는 했지만 KB증권이 디지털 자산을 다룬 ‘다이아KB’ 시리즈를 지난 4월 발간한 이후 업계에서는 추가적인 관련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리서치활동과는 별개로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에는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KB증권은 지난달 26일 디지털자산 관련 인프라 구축 플랫폼 사업에 대한 협력을 위해 SK C&C와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를 통해 ▲실물자산 기반의 STO(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 플랫폼 개발 ▲디지털자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반 인프라 개발 ▲가상자산 및 디지털자산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정보 교류 상호 협력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최근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 전략본부에 블록체인부를 신설했다. 신한금융그룹내 블록체인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을 비롯한 STO,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증권사들과는 반대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적극적으로 보고서 발간에 나서면서 투자자와의 접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코빗은 리서치센터, 빗썸은 경제연구소 자체적으로 설립하면서 증권사 경력이 있는 인력들이 매 주 보고서 발간에 나서고 있다. 고팍스도 매주 업계 소식을 담은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이영석 기자 ysl@

# 내년부터 연 50억 클러스터 임대수익 기대

## 株라쿨라의 중목

서플러스글로벌

이달 클러스터 산단 승인 영향  
협력업체에 공간 제공 ‘시너지’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김도엽 연구원은 ‘서플러스글로벌’에 대해 “반도체 클러스터 준공 승인과 함께 협력업체들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라고 1일 밝혔다. 주가 전망은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5600원으로 제시했다.

서플러스글로벌은 반도체 전·후공정 중공 장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소요되는 장비 매입 및 매각 전문 기업으로, 지난 2017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서플러스글로벌은 8월 예정된 클러스터 산업단지 승인의 영향으로 임대수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엽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앞선 지난해 9월 28일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연간 50억 원 이상의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산업단지승인과 준공 승인이 지연돼 올해 약 10억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연간 50억원 이상의 임대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클러스터 내에 협력업체에게 장비보관, 클린룸, 리퍼비시 공간을 제공해 서로간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클러스터에 12인치 웨이퍼 노광장비와 전·후공정 중공장비를 렌탈 제공해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테스트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아직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임대 계약이 완료됐다”라고 말했다.

서플러스글로벌은 앞선 1분기 가파른 실적 성장을 기대했다. 1분기 기준



매출액은 521억원, 영업이익은 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6%,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의 성장폭이 작은 이유로는 마진이 높은 제품매출의 비중이 소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상품매출은 브로커 수익과 매입한 장비를 리퍼비시 없이 판매한 수익으로 구성된다. 반면, 제품매출은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리퍼비시한 뒤 판매한다”라며 “상품매출 중 특히 브로커 매출의 경우 마진이 낮았는데, 1분기 제품매출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하락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의 성장이 매출액 성장보다 저조했다”고 말했다.

리서치알음은 서플러스글로벌의 2022년 매출액 2013억원, 영업이익 289억원을 전망했다. 이는 작년 대비 각각 2.6%, 6.5% 감소한 수치다. 이에 적정주가는 기존보다 내린 5600원을 제시했음에도, 주가 전망은 ‘긍정적’으로 유지했다.

김 연구원은 오는 2023년 주당순이익(EPS)을 800원으로 예상하면서 “2023년부터 클러스터 임대수익이 온기로 반영되는 점, 노광장비 및 기타 중고장비 렌탈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예상 EPS는 상향했으나, 최근 3개년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하락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플러스글로벌의 주가는 저평가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분양

DL이앤씨, 총 677가구 규모

DL이앤씨는 경상남도 사천시 동급동 일원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분양에 나선다. 지하 4층~지상 49층, 4개동, 전용면적 84~138㎡, 총 677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A 134가구 ▲84㎡B 134가구 ▲84㎡C 44가구 ▲84㎡D 91가구 ▲112㎡A 89가구 ▲112㎡B

136가구 ▲124㎡ 45가구 ▲138㎡A 1가구 ▲138㎡B 1가구 ▲138㎡C 1가구 ▲138㎡D 1가구 등 지역 내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으로 이뤄져 있다.

단지는 삼천포도심을 가로지르는 남일로와 삼상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가 인접해 삼천포 일대는 물론, 사천시 전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 도보권에는 버스 정류장 6개소가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 편리하다.



‘e편한세상 삼천포 오션프라임’ 투시도. /DL이앤씨

홈플러스 삼천포점부터 이마트 사천점, 하나로마트 삼천포농협본점, 삼천포 중앙시장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다. /김대환 기자 kdh@